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터키

Republic of Turkey

2020년 10월 27일 | 팀장(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84천 km ² 	인구 8,417만 명 (2020 ^f) 	정치체제 대통령제 	대외정책 친러, 친중으로 외교정책 변화 
GDP 6,494억 달러 (2020 ^f) 	1인당GDP 7,715달러 (2020 ^f) 	통화단위 리라 (Turkish Lira) 	환율(U\$기준) 7.13 (연평균, 2020 ^f)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8,417만 명의 인구(2020년 전망)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입지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나 단순 조립생산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경상수지 적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미국인 브런슨 목사 구금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으로 미국이 2018년 8월 단행한 대 터키 경제제재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된 후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lira)화 가치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 도입 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야권의 반발을 초래한 결과 2019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는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주요 지자체장직을 야당이 석권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외교정책으로 미국, EU와의 관계가 냉각된 반면,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과는 군사/경제적으로 서로 밀착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7. 3. 8. 수교 (북한과는 2001. 6. 27.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72년),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 방지협정('86년), 투자보장협정('94년), 섬유협정('97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99년),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 관광협정, 상품무역협정('13년), 사회보장협정('15년)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6,154,872	5,980,358	5,297,808	철강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수입	781,802	1,188,879	1,189,057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부품,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0.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80건, 2,870,90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3.3	7.5	3.0	0.9	-5.0
소비자물가상승률	7.8	11.1	16.3	15.2	11.9
재정수지/GDP	-2.3	-2.2	-3.7	-5.7	-7.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2020년 터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영향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 터키 정부의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 억류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미국 정부는 2018년 8월 13일부터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인상(각각 50% 및 20% 부과)하는 경제제재를 단행한 결과 당해년도 터키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48%나 급감하는 등의 여파로 터키 경제의 2018년 성장률은 전년 (7.5%)보다 대폭 둔화된 3.0%에 그쳤음.¹⁾
- 2019년에는 3월의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시행된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영은행 중심의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은 기업 부문의 대출여력이 감소하고 통화(리라) 가치 변동성 확대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²⁾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생산 감소와 국내총투자 위축이 동반되어 0.9%의 저조한 경제성장에 그쳤음.
- 2020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리라 가치 불안과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까지 겹쳐 가계소비, 산업생산, 국내투자가 동반 위축됨에 따라 터키 경제는 -5.0%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2분기와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각각 -9.9% 및 -3.1%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3분기에는 경제위기 심화를 우려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관광 성수기에도 국가 간 이동 제한 유지로 서비스수지 악화 및 내수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리라 가치 불안정과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냉각됨.³⁾
- IHS Markit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사업장 폐쇄로 인한 생산 감소 등으로 터키의 2020년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특히 2020년 6월과 7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의 여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각각 -31.2% 및 -30.5%라는 심각한 수준의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⁴⁾

1) 터키 경제에서 철강산업의 기여도는 4위에 해당하여, 대미 철강 수출의 감소는 터키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음.

2) 2019년 7월 25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1주일 repo 금리)를 24%에서 19.75%로 대폭 인하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를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3) OECD는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0.9월)에서 터키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2차 유행시 2020년 -8.1% 및 2021년 2.0%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4) IHS Markit, Turkey Economic Outlook (2020-10-01)

국내경제

리라 약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전망

- 2018년 8월 미국의 대터키 경제제재로 실물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리라 가치가 폭락, 미 달러 대비 리라 가치가 연초대비 약 92% 폭락하는 환율 대란이 발생하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2%p 급등한 16.3%를 기록하였음.
- 2019년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골적인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리라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이는 외국인자금의 유출로 이어져 리라 가치의 추가 하락을 초래하여 수입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2%를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리라 가치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의 효과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감소가 상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12%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나, 2017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어 물가안정이 터키 중앙은행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터키 중앙은행이 2019년 7월 26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9회 연속 인하하여 24%에서 8.2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9월 24일 10.25%로 200bp 인상한 데는 환율 방어에 의한 외환보유액 급감과 더불어 물가상승 문제를 더이상 도외시킬 수 없게 된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리라 가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지속 우려, 민간 부문의 높은 단기대외 차입 비중, 외환보유액 및 외국인투자 포트폴리오 유입의 감소 전망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도 상당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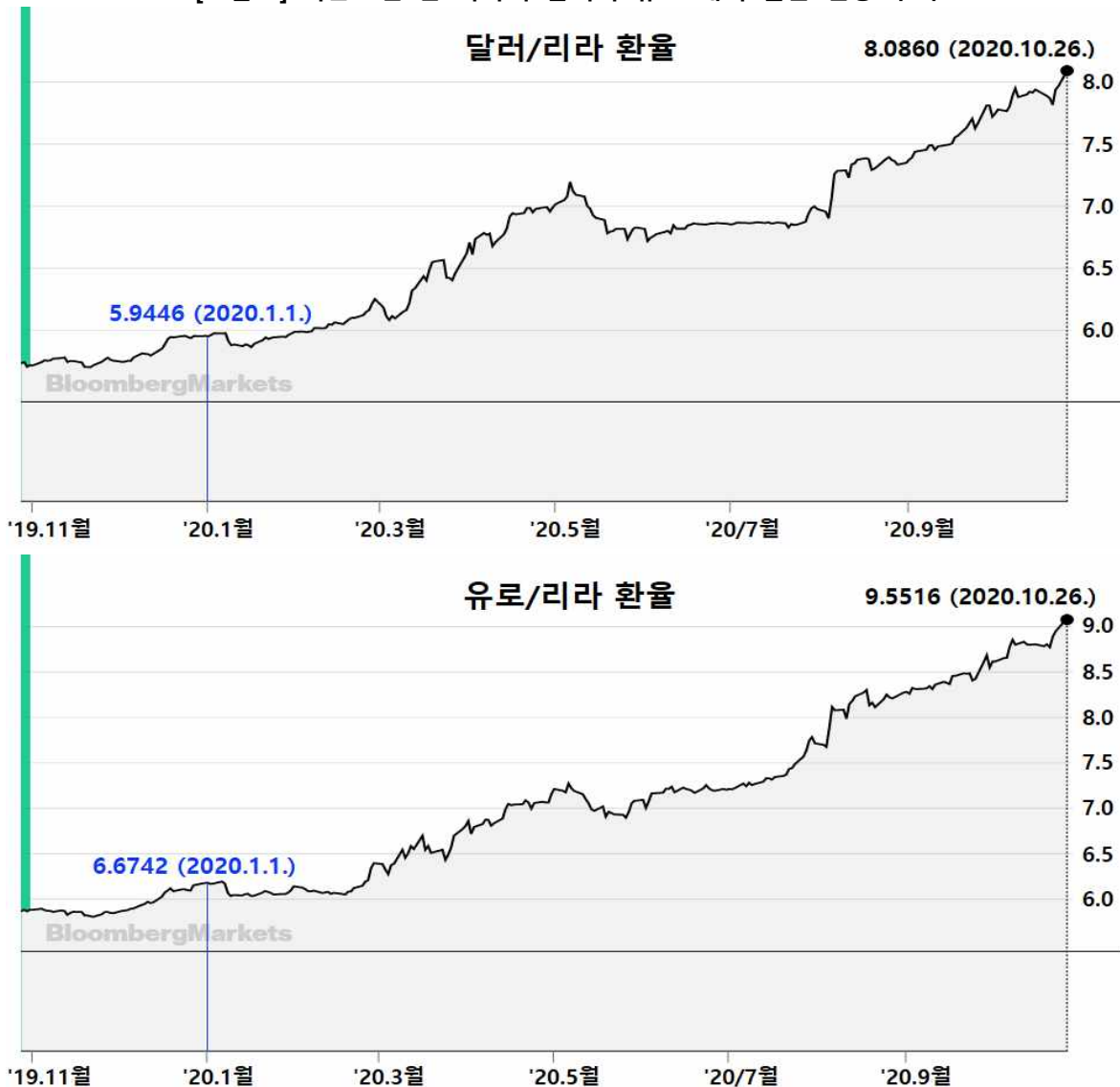
리라 가치는 최근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지속하여 터키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

- 리라 가치는 2018년에 미국의 경제제재로 폭락을 겪은 이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의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7월 말부터 급등, 10월 26일 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8리라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인 8.0860(이하 Bloomberg 종가 기준)를 기록하여 연초의 5.9466에 비해 36.0%나 상승하였음. 같은 날 유로 대비 리라 환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9.5516을 기록하여 연초의 6.6742에 비해 43.1%나 상승하였음.
- 현재 리라 가치의 하락세 지속은 투자자들이 터키 중앙은행의 리라 환율 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부족, 외화표시채권 발행 급증, 동지중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EU의 경제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리라 자산을 대거 매각하는 데 주로 기인함.
- 5월 29일 Reuters는 터키 중앙은행 통계자료 및 익명을 요구한 국영은행 관계자의 추산을 인용, 터키의 국영은행들이 2019년 초부터 2020년 4월까지 리라 가치 부양을 위해 약 770억 규모의 달러화를 공개시장에서 매각(2020년 1~4월 중 440억 달러 매각)하였으며, 그 결과 터키 중앙은행의 순외환보유액은 2020년 초의 약 400억 달러에서 5월 중순경 약 260억 달러로 급감했다고 보도함.⁵⁾

5) www.reuters.com/article/turkey-economy-reserves/turkey-sold-44-bln-reserves-to-boost-lira-this-year-bankers-data-idUSL1N2DB0L5

국내경제

[그림 1] 최근 1년 간 리라의 달러와 유로 대비 환율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bloomberg.com/quote/USDTRY:CUR, bloomberg.com/quote/EURTRY:CUR, 2020.10.27.자 조회)

- 이에 터키 정부는 외화자금 조달 강화를 위해 5월 카타르 정부와 기존에 체결한 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라인을 150억 달러로 3배 늘리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외화자금을 추가 조달, 5월 말 중앙은행의 순외환보유액을 약 320억 달러로 늘린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터키 중앙은행은 8월에는 공개시장 운영의 일환으로 주요 외환 딜러에게 제공하는 유동성 한도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외환거래 자체를 줄여 리라 가치 하락 저지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⁶⁾

6)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2020년 1월 1일 5.9466(이하 Bloomberg 종가 기준)으로 시작하여 2월 7일 6.0146(연중 첫 달러당 6리라 돌파), 5월 1일 7.0122(사상 첫 달러당 7리라 돌파)에 이어 10월 26일 8.0860(사상 첫 달러당 8리라 돌파)을 기록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내경제

- 오히려 터키 정부의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은 터키의 외환/통화정책 투명성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대외적 평판을 하락시켜 외국인투자자들이 터키에서 철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리라 가치 하락은 터키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이 되고 있음.
- 아울러 터키가 리비아 내전 및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인 S-400 지대공 미사일 구매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으로 미국 정부의 대터키 경제제재 가능성까지 더해져 연말까지 리라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됨.

2019년 세수 부진과 선거용 감세 조치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재정수지 적자 악화 지속, 터키 정부는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재정적자 편법적 충당

- 2019년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진에 더하여 3월의 전국 지방선거 및 이와 관련된 정부의 선심성 감세 조치 등으로 인해 GDP 대비 비중이 전년(-3.7%)보다 1.9%p 악화된 -5.6%를 기록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가 급속히 위축되고, 팬데믹 확산의 저지를 위한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관광객 유입도 거의 중단되면서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가 타격을 받아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고, 전염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산 및 내수소비도 급격히 위축됨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 및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8%에 육박할 전망이다.
- GDP 대비 정부의 재정수입 비중은 2016년 말 32.5%에서 2019년 말 29.5%로 4년 연속 위축되었으며, 2020년 말에도 29.0%로 위축될 전망이다.
- 한편, 터키 정부는 2019년 5월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의 충당을 위해, 중앙은행이 긴급 상황에 대비 코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400억 리라 상당의 법정준비금인 Lira Reserve Fund를 재무부가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법안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의 주도로 통과되어 법정준비금이 재무부로 이전되었음. 그러나 이처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편법적인 자금 유입도 최종적으로는 재정수지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10월 15일 터키 재무부는 2020년 1~9월 터키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406억 리라에 달했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2020년도 전체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인 1,389억 리라를 이미 초과한 수준으로,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7,294억 리라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그보다 많은 전년대비 17.6% 증가하여 8,700억 리라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⁷⁾

7) 10월 18일 터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목표치는 각각 1조 1,100억 리라와 1조 3,460억 리라로 설정되었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26,849	-40,584	-20,745	8,895	-25,203
경상수지/GDP	-3.1	-4.7	-2.7	1.2	-3.9
상 품 수 지	-39,923	-58,575	-40,767	-16,647	-24,988
상 품 수 출	152,645	169,214	178,909	182,280	144,810
상 품 수 입	192,568	227,789	219,676	198,927	169,797
외 환 보 유 액	90,604	82,579	71,367	77,042	30,408
총 외 채	409,016	456,174	445,139	456,931	454,330
총외채잔액/GDP	47.1	53.1	57.1	60.1	70.4
D.S.R.	31.6	30.9	27.7	25.7	30.2

자료: IMF BOPS, EIU Database 및 OECD CRAM.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여파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증가와 서비스수지 흑자 감소로 총수출액이 급감하여 경상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 전환될 전망

-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리라 약세는 수입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입품 수요를 위축시키는 한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다소 증대시켜, 2019년에는 전년대비 상품수입이 9.4% 감소하고 상품수출은 1.9%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59.2%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2018년 GDP 대비 -2.7%의 적자에서 2019년에는 GDP 대비 1.2%의 흑자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이 위축된 외국산 철강의 급격한 EU 시장 유입 증가를 막고자 2019년 2월 철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동년 8월 14일 본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하는 운용방안을 WTO에 통보함에 따라 터키의 대EU 철강 수출은 2020년 들어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2017년까지 터키산 철강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2018년에 브런슨 목사 사건으로 미국이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2배 인상한 결과 미국의 당해년도 터키산 철강 수입액이 전년대비 48%나 급감하였음.
-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물량이 EU 시장으로 몰려 EU의 당해년도 터키산 철강 수입액이 전년대비 80%나 증가하자, EU는 2019년 2월 시행 첫해 기준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였음.

대외거래

- 한편,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6일부로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5월 17일부터 터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2020년부터 터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 수출상대국의 수입수요 급감, 국가간 이동 제한에 따른 관광 부문의 타격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급감(전년대비 65.6% 감소 추정) 등으로 총수출액(상품수출 + 서비스수출 + 소득수취)이 전년대비 26.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2020년 경상수지는 1년 만에 GDP 대비 -4%에 육박하는 적자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 리라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대규모 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 급감 추세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16년 월평균수입액의 약 4.7개월분에서 2017년 3.7개월분, 2018년 3.2개월분으로 계속 위축되다가 2019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힘입어 3.8개월분으로 반등하였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 전환하고, 중앙은행이 리라 가치 방어를 위해 연초부터 리라를 매입하고 외환을 방출하는 대규모 시장 개입을 지속한 결과, IMF에 따르면, 터키의 외환보유액은 2019년 말 770억 4,154만 달러에서 2020년 8월 말 387억 4,813만 달러로 8개월 사이에 무려 49.7%나 감소하여 2020년 터키의 월평균수입액 추정치의 2.3개월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⁸⁾
- 최근 터키 중앙은행은 국내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빌려 시장개입을 위한 외환을 조달하고 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이같은 단기외화자금 차입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313억 달러를 기록하여, 국제기준에 의하면 실제로는 터키의 외환보유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터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스왑 협정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 규모 역시 6월 544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순외환보유액(대외채무를 제외한 외환보유액)도 급속히 감소하여, 5월 초 Bloomberg와 Reuters는 터키의 3월 말 순외환보유액이 연초대비 약 150억 달러 감소한 25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에르도안 행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면서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8년 129.8억 달러에서 2019년 84.3억 달러로 급감⁹⁾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까지 겹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의 2020년 총수출액이 전년대비 2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FDI 유입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말까지 대외차입 외의 방식에 의한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확충은 힘들 것으로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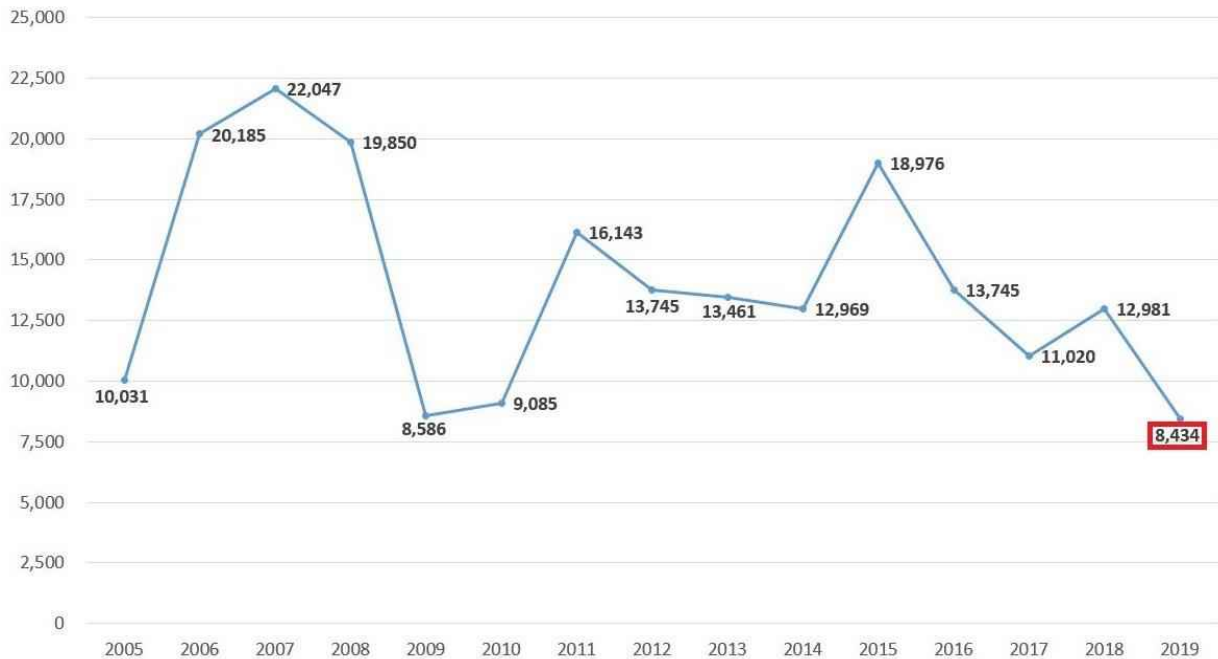
8)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20.10.6.자 조회), EIU Country Report - Turkey (October 2020)

9) UNCTADstat (2020.10.19.자 조회)

대외거래

[그림 2] 최근 15년(2005~19년)간 터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stat (2020.10.26.자 조회)

- 낮은 기준금리 수준,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높은 투자 리스크의 2가지 요소에 극적인 개선이 없는 한 FDI 유입은 감소 추세를 계속할 전망이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수익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리라 가치 안정에 필요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확보는 외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터키 정부는 2019년 5월 15일 외환거래시 외환판매자에게 거래액의 0.1%의 외환거래세(BSMV)를 부과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는 외환거래세율을 0.2%로 인상하였음.
 - 외환거래세는 1998년 역외계좌를 통한 환투기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2008년 5월부터 제로(0) 세율을 유지하다 약 11년 만에 부활됨. 은행, 환전소 등에 부과되며, 은행 간 거래, 터키 재무부의 외환 매입, 수출자의 외환매입 거래, 외화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서는 면제됨.
- 2020년 5월 24일 터키 정부는 외환거래세율을 1.0%로 5배 인상하고,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한 원천세율도 기존의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음. 터키 정부는 세율 인상의 이유에 대해 세수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지원여력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외환수요 자체의 억제를 통한 리라 가치 방어가 실제 이유라고 보고 있음.
 - 외환거래세율 인상은 환투기 차단 및 외화수요 억제를 통해 리라 가치 하락을 억제하는 동시에 부족한 세수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대 터키 투자이익 저해 등으로 경제성장과 외환보유액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외채상환능력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외채규모 증가 추세 지속, 리라 약세로 외채상환능력 악화

- 지속적인 쌍둥이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총외채잔액과 단기외채잔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8년 각각 57.1% 및 163.9%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각각 60.1% 및 156.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2018년 182.4% 및 2019년 180.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쌍둥이 적자 규모가 더욱 증가한 반면, FDI 유입은 감소함에 따라 적자 보전과 외환보유액 확보를 위해 외채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전년대비 10%p 이상 증가하여 70%를 넘어서는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전년대비 무려 240%p 이상 증가하여 4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2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외채상환능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임.
- 터키 정부는 2020년 10월 6일 25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본드를 발행하였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목표금액 조달에 성공하였으나, 투자자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사한 만기의 유동채권 대비 0.2%p 더 높은 6.4%의 금리에 발행되었음.
 - * 몽골(Moody's 등급 B3)은 9월 29일 5.5년 만기 6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5.375%의 금리에 발행
- 외채규모 증가에 따른 외채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D.S.R.도 IMF와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수준인 18~20%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2018년 27.7%와 2019년 25.7%에 이어 202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리라 가치 약세 지속은 수입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은 물론 환율 상승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 가중을 초래하여, 터키의 외채상환능력은 리라 약세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더하여 만기가 연장된 외채의 상환기일이 계속 도래함에 따라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도 가중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산업구조 자체는 다변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단순 조립 저부가가치 중심

- 터키는 원자재 수출이나 관광 등 특정 분야에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인근 국가들과 달리, 제조업 중심의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특히 터키 정부가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럽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공장을 터키에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터키 소재 외국 제조기업은 자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터키의 생산공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유럽에 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조업 중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부문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조립 중심의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높은 수준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를 이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물가수준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에너지 수입비중은 경상수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 원유·천연가스 수입액은 터키 전체 상품수입액의 10% 이상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비중임. 전력수요의 약 40%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는 발전산업 구조도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성장잠재력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 보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으로 중동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은 물론 러시아와 중동의 유럽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 허브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은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유럽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2018년 기준 81.9백만 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68%에 달하여 노동력이 풍부함.¹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

- 에르도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2019년 FDI 유입액은 84.3억 달러로 2015년(189.8억 달러)의 44.4%에 그쳤음.

10) 이슬람 국가의 특성상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2018년 세계은행 기준 1.49%)과 출산율(2017년 세계은행 기준 가임여성 1명당 2.034명의 신생아 출산)을 기록하고 있음.

정책성과

부진한 경제성장, 리라 가치 하락,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 지속으로 에르도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등 터키의 경제정책 전반에 깊이 간여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 간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리라 가치가 하락을 거듭하며 10%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최근 미국,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물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접국들과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자주 초래하고, 이것이 상대국들의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져 터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침해는 경제불안을 초래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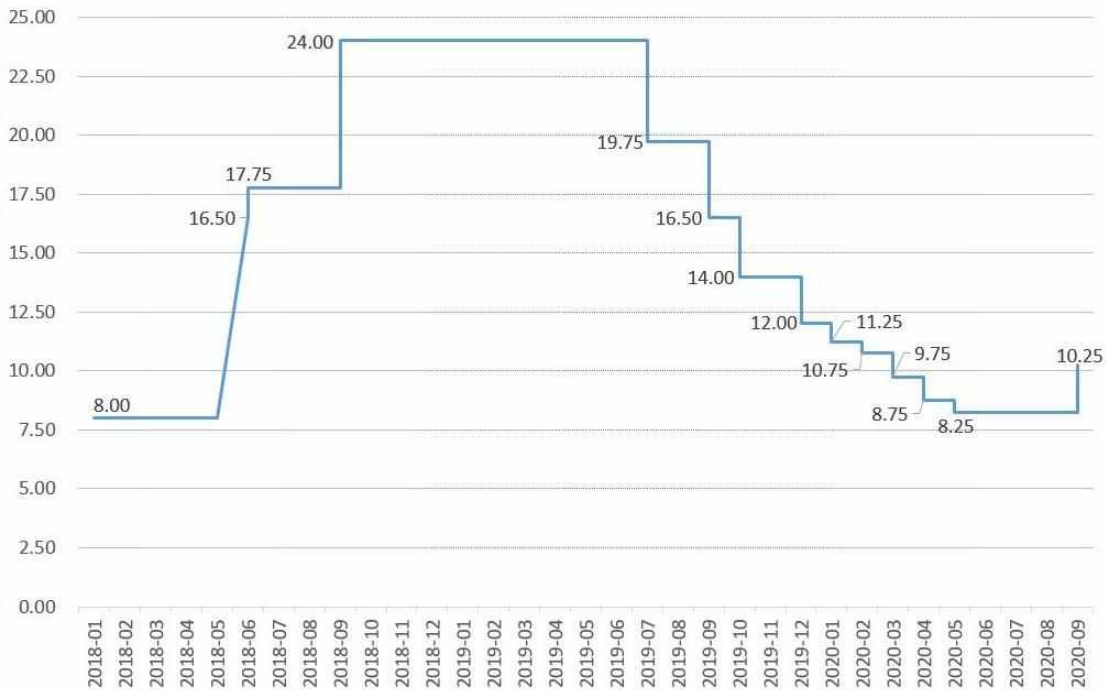
- 2019년 7월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6년 4월 임명되어 당시 잔여임기를 약 9개월 남겨둔 체 틸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대통령령으로 해임하고 우이살 부총재를 신임 총재로 임명하였음.
- 체틸카야 前총재는 2018년 8월 미국인 목사 투옥과 관세 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리라 가치가 폭락하자 리라 가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1주일물 repo 금리)를 6월 1일(8% → 16.5%), 6월 8일(16.5% → 17.75%) 및 9월 14일(17.75% → 24%)에 걸쳐 대폭 인상하고,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며,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총재 교체 20일 만인 7월 26일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4%에서 19.75%로 대폭 인하하고, 이후 9월 13일(19.75% → 16.5%), 10월 25일(16.5% → 14%) 및 12월 13일(14% → 12%) 연속 인하하였음. 터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 및 물가상승률 전망 개선을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우이살 총재가 경기부양을 원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로 평가됨.
- 기준금리는 2020년 들어서도 1월 17일(12% → 11.25%), 2월 20일(11.25% → 10.75%), 3월 18일(10.75% → 9.75%), 4월 23일(9.75% → 8.75%), 5월 22일(8.75% → 8.25%) 5개월 연속 매월 인하를 거듭하여, 당초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10%대 초반 아래인 8%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이처럼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오히려 터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터키 주식시장과 리라 환율에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았음.
- 이에 시장의 금리 인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터키 중앙은행은 5월 22일 이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리라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자 결국 9월 24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0.25%로 200bp 인상하였음.

정책성과

- IHS Markit은 터키 중앙은행이 리라 가치 안정을 위해 4분기 중 상당한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단행할 것으로 전망¹¹⁾하였으나, 이미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터키 중앙은행은 10월 21일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로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재의 10.25%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음. 동 발표 직후 미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장중 7.9786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리라 가치의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림 2] 터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 (2018.1월~2020.10월)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 통화정책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한 확장 기조에서 리라 가치 및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의 내수소비 및 경제성장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에 직면하겠으나, 리라 가치의 대폭락 저지,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잘못된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저금리 유지를 고집¹²⁾하고 있으며, 금번 기준금리 동결은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대폭 인상 대신 외채 도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이는 리라 가치 하락으로 증대된 외채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11) IHS Markit, Turkey Economic Outlook (2020-10-01)

12) 피셔 효과(Fisher effect) 이론에 따르면, "실질금리 =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의 관계가 존재하며, 인플레이션 발생에 뒤이어 명목금리 상승이 일어나므로 (인플레이션 발생 → 경제주체는 인플레이션이 헤지되는 실물자산, 주식 등으로 이동 → 은행 예금 감소 → 은행은 지급준비금 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나 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 → 은행 간 대부시장에서의 수요 증가 → 콜금리 상승 → 명목금리 상승) 에르도안 대통령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뒤바꿔놓은 착각임.

정책성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터키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중앙은행이 리라 가치 하락 저지를 위한 시장개입에 소요되는 외환을 국내 은행들로부터 조달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표시부채 구조 재조정과 외화표시 차입금의 만기 재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여신화가 현실화될 경우 터키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다수의 시장 분석가들은 터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여 리라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내 기업들의 대출금 이자상환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기업의 도산율과 은행의 부실여신 발생율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어, 터키 중앙은행은 거둬들인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 운용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결과 딜레마에 직면한 상태임.

리라 가치 불안정은 터키의 금융 부문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 터키의 금융 부문은 최근 대외차입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외부충격에의 노출 역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터키 은행들은 국제적 저금리를 활용한 대외차입을 통해 국내 대출규모를 늘려, 현재 터키 은행권의 평균 예대율¹³⁾은 124%에 달하고 전체 대출자금의 23%가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자금으로 집계됨.
- 한편,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차입자금은 통상 2년마다 롤오버(사실상의 만기 재연장)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일부 은행들이 터키 경제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롤오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터키 은행권의 부실여신(NPL) 비율은 2017년 말 3.0%에서 2018년 말에는 리라 위기의 여파로 3.9%로 상승하더니, 2019년 말에는 5.3%로 급등하는 등 터키의 금융 부문 전반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¹⁴⁾
- 리라는 중앙은행의 외환유입 포트폴리오 구성의 취약성(국내 은행들의 외화예금에 의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에르도안 행정부의 과도한 침해, 외환보유액 감소, 외채부담 가중 등의 요인들로 인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신흥국 통화들 중 그 가치가 특히 불안정한 편이며, 현재 EU, 미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갈등 악화와 그로 인한 상대국들의 경제제재 가능성 고조로 인해 향후 더욱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안고 있음.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IMF로부터 구제금융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여, 리라 가치의 추가 폭락시 이를 저지할 정책수단도 마땅치 않은 실정임.

13) loan-to-deposit ratio: '은행 총대출액/총예금잔고' = 은행의 환금성 확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100%를 과하게 넘으면 은행 경영에 적신호로 간주되며, 100%에 많이 미달하면 자금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14) IHS Markit, Turkey Economic Outlook (2020-10-01)

정치동향

에르도안 대통령, 독단적 국정 운영과 장기 집권 도모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

- 이스탄불 시장(1994~98년)과 국무총리(2003~14년)를 거쳐 2014년 8월 집권, 2018년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재선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확립한 정교 분리의 세속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슬람주의를 내세워 종교적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발생하였으나 6시간 만에 진압된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정부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자신의 반대파로 분류된 이들에게 쿠데타 가담 혐의를 씌워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여 사법부와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3권분립의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
-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대폭 강화된 대통령제를 도입한 뒤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여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음.
-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총리직을 폐지하고 대신 부총리직을 신설하며,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행정명령 발효, 의회의 승인 없이 부통령과 장관 임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리는 물론 판·검사 등 사법부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절대 권력을 허용하고 3권분립을 훼손하였음.
- 또한 대통령은 대선 및 총선을 조기 시행할 권한을 갖고, 대선 승리 시 중임할 수 있으며, 중임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6월 조기 대선 승리로 중임 조항에 따라 2028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조기 대선을 다시 실시할 경우 2033년까지 재임할 수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인 베라트 알바이락을 재무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2018년 10월 29일 개항한 이스탄불 신공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전형적인 독재자 성향을 보였으나, 스스로를 국부(國父) 아타튀르크와 동일시하려는 의도라는 여론의 반발에 결국 철회하였음.

2018년 6월 총선 결과, 여권 연대가 의회 의석의 57.3% 차지

- 에르도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자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자운동당(MHP)과 함께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보수 성향의 여권 연대 People's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음.
- 한편, 중도좌파 공화인민당(CHP)은 2017년 11월 창당한 중도우파 좋은당(IYI)과 함께 야권 연대인 Nation Alliance를 구성하고 있으며, 친(親)쿠르드족 성향의 인민민주당(HDP)도 의회에 진출해 있음.
- 2018년 6월의 총선 결과 터키 의회(총 600석)는 People's Alliance가 344석(AKP 295석 + MHP 49석)으로 과반수인 57.3%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직전 선거 결과인 357석보다 13석 감소한 것임. 한편, Nation Alliance는 직전 선거보다 55석 증가한 189석(CHP 146석 + IYI 43석)으로 31.5%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으로 선거에 임한 HDP는 직전 선거보다 8석 증가한 67석을 얻어 11.2%를 차지하였음.

정치동향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여권 연대가 우위 유지, 주요 5대 도시 시장직은 야당이 석권

- 3월 3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 결과 AKP와 MHP의 여권 연대 People's Alliance가 전체의 51.67%(AKP 44.42%, MHP 7.25%)를 득표하며 기존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였음. 한편, CHP와 İYİ의 야권 연대 Nation Alliance는 37.53%(CHP 30.07%, İYİ 7.46%)를 득표하였음.
- 아울러 여타 정당과의 연합 없이 단독으로 선거에 나선 HDP는 쿠르드족이 밀집한 동부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결과 4.22%를 득표하였으며,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6.58% 득표에 그쳤음.
- 81개 자치단체 주도(province capital) 시장 선거에서는 AKP가 39개, CHP가 21개, MHP가 11개, HDP가 8개, TKP(터키공산당)가 1개, 무소속 후보가 1개 도시의 시장직을 각각 획득하였음.
- 그러나 야당인 CHP 후보들이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아 등 주요 5대 도시의 시장직을 석권하며 기존의 14개 도시보다 7개 증가한 21개 도시의 시장직을 차지한 반면, AKP는 기존의 47개 도시보다 8개 감소한 39개 도시의 시장직을 차지하는 데 그쳤음.
- 앙카라 시장직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정의개발당 후보가 낙선하였음. 이즈미르는 CHP가 시장직을 유지하였으며, 안탈리아는 CHP가 AKP로부터 시장직을 탈환하였음.
- 특히 AKP에서 CHP로 시장직이 넘어간 경우는 앙카라, 이스탄불, 안탈리아 포함 8개 도시인 반면, CHP에서 AKP로 시장직이 넘어간 경우는 2개 도시에 불과하였음.

이스탄불 시장 선거, 에르도안 대통령의 압력으로 결과 무효화 및 재선거 실시

- 최대 도시이자 터키 민심의 향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되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는 개표율이 98.8%인 상태에서 개표가 중단되고, AKP의 비날리 이을드름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개표가 재개된 결과 CHP의 에크렘 이마모울루 후보가 약 14,000표를 더 득표하여 0.16% 포인트 차이인 48.77% 득표로 승리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이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된 이후 25년 간 AKP이 독식해온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리라 가치 하락 등 경제위기,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독재를 추구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의 결과로 분석됨.
- 그러나 이스탄불 시장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하여 이스탄불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여겨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AKP가 25년 만에 야당 후보에 패배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아,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터키 최고선거위원회(YSK)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였음.
- AKP는 조작 등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YSK에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나, 재검표 결과도 이마모울루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非공무원이 개표감시위원으로 활동해 선거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YSK에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였음. 이에 5월 6일 YSK는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하여 전형적인 독재국가적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음.

정치동향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오히려 CHP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며 승리 확정

- 4월 17일 이스탄불 시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마모을루 시장은 5월 6일 YSK의 이스탄불 시장 선거 결과 무효화 및 재선거 명령에 따라 당선이 취소되고, 6월 23일 재선거가 실시되었음. 그러나 재선거 결과 이마모을루 후보가 54.21%를 득표하여 44.99%를 득표한 이을드름 후보에 오히려 앞서보다 더 큰 격차인 9.22% 포인트 앞서며 승리를 확정, 6월 27일 이스탄불 시장으로 다시 취임하였음.
- 금번 선거의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의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의 57.6배로, 투표자 수와 유효투표 수 모두 6월 재선거가 3월 선거를 앞질렀음.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으로 3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강요함으로써 이스탄불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재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더욱 높았음을 보여줌.

구 분		2019.3.31.자 선거	2019.6.23.자 재선거
등록 유권자		10,570,939	10,570,354
실제 투표자		8,865,086	8,925,063
유효투표		8,549,838	8,746,464
무효투표		315,248	178,599
득표 수	이마모을루 후보(CHP)	4,169,765(48.77%)	4,741,868(54.21%)
	이을드름 후보(AKP)	4,156,036(48.61%)	3,935,453(44.99%)
	기타 군소 후보	224,037(2.62%)	69,143(0.79%)
1,2위 후보 득표 차이		13,729(0.16%)	806,415(9.22%)

AKP 주역들의 탈당 및 신당 창당으로 집권세력 분열 표면화

- 2019년 지방선거 결과 AKP가 이스탄불 등 주요 대도시에서 패배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선거 결과 불복도 패배의 재확인으로 귀결되어 AKP의 위신이 더욱 추락하자, 그동안 AKP 내부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발해온 주요 정치인들이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을 창당하며 AKP의 내부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음.
- AKP 내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권력 장악, 3권 분립 약화, 과도한 종교적 보수주의 등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음.
- 먼저 AKP의 중진인 알리 바바잔(Ali Babacan)은 2019년 7월 8일 "자신이 믿는 원칙·가치·이상과 현 정부의 정책 간의 심각한 차이"를 이유로 AKP를 탈당하고 2020년 3월 11일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진보당(DEVA)을 창당하였으며, AKP의 또 다른 중진인 아흐메트 다부토을루(Ahmet Davutoğlu)도 같은 해 9월 13일 AKP를 탈당하고 12월 12일 보수 성향의 미래당(GP)을 창당하였음.

정치동향

- 바바잔 DEVA 당수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집권 여당 AKP를 창당한 주역으로, 압둘라 귄(Abdullah Gül) 총리와 에르도안 총리 시절 경제장관(2002.11월~2007.8월), 에르도안 총리 시절 외교장관(2007.8월~2009.5월) 및 터키의 EU 가입 협상대표(2005.1월~2009.1월), 에르도안 총리와 다부토을루 총리 시절 부총리(2009.5월~2015.8월)를 역임한 AKP의 핵심 인사임.
- 다부토을루 GP 당수 역시 에르도안 총리 시절 외교장관(2009.5월~2014.8월), 에르도안 대통령 취임 후 총리 겸 AKP 당수(2014.8월~2016.5월)까지 지낸 인물로, 바바잔과 다부토을루의 AKP 탈당 및 신당 창당은 AKP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도력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됨.
- GP와 DEVA 모두 2015년 터키 총선 이후 창당되어 의회에서의 의석은 GP가 0석, DEVA가 1석에 불과하나, 2023년 예정된 터키 총선 전까지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AKP 소속 의원들의 영입에 성공하고, 이스탄불 등 대도시에 밀집한 세속주의 지지자들에게 AKP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어필할 경우 AKP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바잔과 DEVA 및 다부토을루와 GP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두 정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집요한 정치적 탄압과 흑색선전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 한편, 독일의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는 2020년 5월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GP와 DEVA가 AKP의 기존 지지자들 중 적은 부분만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어도 AKP의 위상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동 보고서는 DEVA가 경제 문제에 치중하는 테크노크라트(전문 기술관료) 중심의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반면, GP는 보다 이념적 목표에 치중하는 한편으로 AKP를 지지해온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중 "헌정권의 도덕성 부족 및 과도한 이슬람주의 추구와 3권분립 침해 등에 실망한 이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1923년 케말 아타튀르크에 의해 창당되어 터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정당이자 현재 주요 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킬리즈다르도을루(Kemal Kılıçdaroğlu) 당수는 2020년 5월 13일, 3년 후인 2023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DEVA와 GP의 후보자들이 당선되도록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의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 심화는 물론 시리아 북부(쿠르드족 거주지)와 리비아의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 터키로 계속 대거 유입되고 있는 난민 등의 문제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SWP 보고서는 다부토을루가 AKP 탈당 전까지 터키의 중동 지역(특히 시리아) 분쟁 개입, 2015년 6월의 총선 직후 터키 내 쿠르드족 거주지에서의 갈등 증폭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인 반면, 바바잔은 터키의 경제 호황기에 터키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및 실행을 주도한 인물임을 지적하며, 다부토을루의 GP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AKP 지지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바바잔의 DEVA가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정치동향

2019년 8월 친(親)쿠르드 성향의 HDP 소속 시장 3명 해임

- 터키 내무부는 2019년 8월 19일 성명을 통해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3개 도시인 디야르바크르 시(남동부 디야르바크르 주의 주도)의 아드난 셀추 므즈라크르 시장과 마르딘 시(남동부 마르딘 주의 주도)의 아흐메트 튀르크 시장, 반 시(동부 반 호수 동쪽 연안의 도시)의 베디아 외즈곡체 에르탄 시장을 해임하고 각 시가 소속된 주의 도지사가 시장직을 겸임한다고 발표하였음.
-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들이 쿠르드족 분리·독립주의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울러 테러리스트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거리에 테러 조직원의 이름을 붙이는 등 테러 단체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임 사유를 설명하였음.
- 이들은 모두 친(親)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HDP) 소속으로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디야르바크르 시장은 63%, 마르딘 시장은 56%, 반 시장은 54%) 민선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5개월 만에 시장직을 박탈당하였음.
- 터키 정부와 여당은 3월 지방선거에서 HDP가 PKK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으나, HDP는 PKK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음. 1978년 창설한 PKK는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목표로 폭력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테러를 자행하여, 터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PKK의 테러로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터키 정부는 앞서 2016년 7월의 실패로 끝난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HDP 소속 시장 수십 명을 PKK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한 바 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3월 지방선거 직전에 HDP 후보들과 PKK 간의 연관이 드러날 경우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또 다시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해임의 실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스탄불 법원, 2019년 9월 CHP의 유력 여성 정치인에게 국가원수 모독 혐의로 중형 선고

- 2019년 9월 6일 이스탄불 법원은 CHP의 이스탄불 지역당 대표인 여성 정치인 카난 카프탄즈오을루에게 "테러리스트들에 동조하여 국가기관과 국가원수를 모독한 혐의"로 징역 9년 8개월 20일을 선고하였음. 법원은 카프탄즈오을루가 2012~17년 중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짐.
- 카프탄즈오을루는 3월 지방선거에서 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후보의 이스탄불 시장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며, 이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카프탄즈오을루에 대한 보복으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음.

사회동향

에르도안 대통령의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2016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된 후 (동 쿠데타는 실제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정부측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지속)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귤렌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적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수십만 권 이상 수거·소각하거나 출판을 금지하는 '터키판 분서갱유'까지 자행하는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2016년에는 수학 교과서 1종에 실린 수학 문제들 중 'F지점에서 G지점까지'라는 문구가 귤렌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인 F와 G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이 교과서의 출판이 금지되었으며, 2018년에는 귤렌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이름이 내용에 포함된 교과서 180여만 권을 전량 파기하고 수정 인쇄하는 등 상식 밖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

사회와 언론의 자유도는 유럽(구소련 제외) 최하위이자 전 세계에서 하위권

- 미국 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와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서 발표하는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는 모두 터키를 '사회와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분류하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보고서에서 터키는 사회적 자유도인 Global Freedom Scores(32점 = "부자유"(Not Free), 210개 국가/지역 중 154위)와 인터넷 사용 자유도인 Internet Freedom Scores(37점 = "부자유", 65개국 중 46위) 모두 조사대상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¹⁵⁾
- 한편,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에서도 터키는 에르도안 집권 이후 언론 자유 순위가 하락을 거듭하여 유럽(구소련 제외) 최하위이자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국경없는 기자회의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상의 터키의 순위¹⁶⁾

연도	순위/전체	점수*	최하위 국가
2016년	151/180위	50.76점	에리트리아(84.86점)
2017년	155/180위	52.98점	북한(84.98점)
2018년	157/180위	53.50점	북한(88.87점)
2019년	157/180위	52.81점	투르크메니스탄(85.44점)
2020년	154/180위	50.02점	북한(85.82점)

* 점수(범위 0~100점)가 낮을수록 언론자유도는 높음.

15) ① Global Freedom Scores : Political Rights(정치적 권리) 16점 + Civil Liberty(시민 자유) 16점 = 32점
 * 터키보다 순위가 낮은 유럽 국가는 모두 구소련 국가인 러시아(176위), 벨라루스(178위), 아제르바이잔(196위)
 ② Internet Freedom Scores : Obstacle to Access(접근 방해) 15점 + Limits on Content(컨텐츠 제약) 11점 + Violation of User Rights(사용자 권리 침해) 11점 = 37점
 * 평점 구간 : 100~70점 = "자유"(Free) / 69~40점 : "부분적 자유"(Partly Free) / 39~0점 : "부자유"(Not Free)
 자료: freedomhouse.org/countries/freedom-world/scores (2020.10.20.자 조회)
 16) 2020년 보고서상에서 터키보다 순위가 낮은 유럽 국가는 구소련 국가인 아제르바이잔(168위)이 유일
 자료: rsf.org/en/ranking (2020.10.20.자 조회)

사회동향

시리아로부터의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이 인접국인 터키로 대거 유입되어, 터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터키 내에 4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체류하고 있음. 난민의 유입은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난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의 물가 상승, 그리고 터키인들에 의한 불법취업 난민의 착취 등 복잡한 문제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
- 2011년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난민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자 EU는 2016년 터키와 협정을 체결, EU 회원국인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들을 터키에 재수용하는 대가로 6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2020년 2월 28일 터키 정부는 EU의 추가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유럽으로 향하는 국경을 개방하여, 난민 문제 관련 EU와의 갈등이 심화되었음.
- 한편, 시리아 등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들이 일자리가 집중된 이스탄불로 계속 몰려들자,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 이스탄불에 체류하는 난민들을 적발하여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재 이스탄불에만 약 5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스탄불 시의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터키 정부측의 입장임. 터키 정부는 2019년부터 난민들에게 이스탄불 거주를 위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쿠르드족 주민 문제는 안보의 지속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

- 1978년 창설된 터키 내 쿠르드족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를 본거지로 삼고 테러 활동을 통한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구하여, 터키 정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터키 군인·민간인이 PKK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하였음.
-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인구 약 3,000만 명)인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분포해 있으며, 터키 남부에 가장 많은 1,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터키 내 최대 소수민족임.
- PKK는 현재 터키는 물론 미국과 EU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 이에 터키군은 PKK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2019년 5월과 7월에도 이라크 북부에서 PKK 전투원들의 자국 침투를 막기 위한 '발톱 작전'을 벌였음. 아울러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족 군사조직과 내전이 지속 중인 시리아 내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 군사 공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터키 정부는 향후에도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측되나, 독자적인 민족 국가 수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쿠르드족의 존재는 터키의 안보에 계속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회동향

아야소피아의 모스크 전환으로 노골화된 이슬람주의 강요는 세속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고조

-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며 종교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뒤 터키 공화국의 건국 이념의 하나인 정교분리의 세속주의 원칙을 거듭 훼손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1935년부터 종교 박물관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었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아야소피아¹⁷⁾를 모스크(이슬람교 사원)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려 파란을 일으켰음.
- 아야소피아는 동방 정교회 성당에서 모스크로 강제 전환되었다가 터키 공화국의 출범으로 종교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국부(國父) 케말 아타튀르크에 의해 확립된 터키의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존재였음. 그러나 터키 이슬람주의자들은 아야소피아의 모스크 재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2020년 7월 10일 터키 최고행정법원이 아야소피아를 종교 박물관으로 전환한 1934년 11월 24일 터키 내각의 결정을 위법으로 판결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즉시 아야소피아의 모스크 재전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아야소피아의 모스크 전환은 EU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는 물론 동-남부 유럽의 정교회 국가들, 특히 동방 정교회의 원조(元祖)인 그리스와 현대 동방 정교회의 본류(本流)를 자처하는 러시아로부터도 큰 반발을 초래하는 등 터키의 대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7월 24일 아야소피아가 모스크로 개방되어 86년 만의 첫 금요일 기도(에르도안 대통령도 참석)에 대대적인 인파가 몰렸으며, 8월 21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소재 카리에 박물관¹⁸⁾도 모스크로 전환할 것을 공식 지시하였음. 앞서 2019년 11월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카리에 박물관의 '박물관' 지위를 취소함으로써 모스크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최고행정법원이 사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상실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수족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줌.
- 아야소피아와 카리에 박물관의 모스크 전환은 표면적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감행한 행위이나, 본질적으로는 아타튀르크에 의해 확립된 정교분리의 세속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정교일치의 중세적 이슬람주의 국가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성향이 투르크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지역의 진보 성향 소수 국민들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지역의 보수 이슬람주의 성향 다수 국민들 간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어 사회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아울러 정교일치에 명백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대부분의 서방 세계와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17) Ayasofia, 그리스어로는 Hagia Sophia('성스러운 지혜'라는 뜻).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으로 325년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당시 명칭)에 건설된 기존의 건물이 532년 반란의 와중에서 소실된 후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새로운 구상으로 재건된 동방 정교회 성당으로,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의 당시 명칭) 함락 후 제국 황실 전속의 모스크로 강제 전환되었음.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 수립 후 초대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가 국교(國教)를 폐지하고 세속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1931년부터 임시로 봉쇄되었던 아야소피아는 1934년 11월 24일의 내각 결정에 따라 1935년 2월 1일 '종교 박물관'으로 재개장하였으며, 이 건물 내에서 어떠한 종교행위도 금지되었음.

18) 4세기 초 건립되어 14세기에 현재 모습을 갖춘 동방 정교회 성당(본래 명칭은 성 코라 성당)으로, 역시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모스크로 강제 전환되었다가 1945년 종교 박물관으로 전환됨. 건물 내벽의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화가 유명함.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제관계

브런슨 목사 구금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의 본격적인 시발점

- 터키 정부는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홀라르 귤렌(현재 미국에 망명 중) 및 터키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PK)과 결탁하여, 정치적·군사적 기밀로 분류된 국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2016년 7월 발생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터키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터키의 이즈미르에 부인과 함께 20년 간 거주하며 개신교회를 운영해온 브런슨 목사는 2016년 10월 터키 경찰에 체포, 구금되어 간첩 및 테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터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하였음.
- 그러나 개신교 목회자인 브런슨 목사가 이슬람 성직자인 귤렌과 결탁하여 터키 정부의 전복을 도모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실제로는 미국에 망명 중인 귤렌을 송환하라는 에르도안 정부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귤렌과 맞교환할 인질로 브런슨 목사를 체포, 구금했다는 분석이 우세함.
- 아울러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운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하는 종교적 보수층의 타 종교(특히 카톨릭,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 종파들)에 대한 적대감도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터키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 대폭 인상 등 경제제재를 발동하자, 터키 법원이 2018년 10월 그의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브런슨 목사는 구금 2년 만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귀국하였음. 한편,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6일부로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5월 17일부터 터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여 터키와의 관계는 계속 냉각되었음.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민병대 공격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로 다시금 관계 악화

- 2019년 10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전 중인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지역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하자, 터키군은 10월 9일 이 지역의 쿠르드족 민병대를 소탕하고 폭 30km, 길이 440km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이주시키겠다고 군사작전을 감행하였음.
- 시리아 내전에서 서방 국가들에 협조해온 쿠르드족 민병대를 미국이 배신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미국 정부는 10월 14일 터키와 진행 중이던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터키 국방장관, 내무장관, 에너지장관을 제재대상에 올리는 한편, 터키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다시 50%로 인상하였음.
- 10월 17일 미국의 중재로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 간에 5일 간의 휴전이 합의되고, 10월 22일 터키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러시아와 쿠르드족 민병대 철수, 안전지대의 터키-러시아 공동 관리 등을 조건으로 공격 중단에 합의하고 휴전을 선언하였으며, 10월 23일 미국은 대터키 제재를 철회하였음.
- 결과적으로 이는 러시아에게 중동 지역 내 영향력 확대와 터키와의 관계 강화라는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터키와 미국 간의 관계는 다시금 악화되었음.

국제관계

러시아제 미사일 방공 시스템 S-400 도입, Halkbank 소송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

- 터키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의 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터키 정부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에 난색을 보여 구매가 무산되자 2017년 4월 러시아 정부와 S-400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음.
- 터키는 미국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2~25일 러시아로부터 S-400 1차분을 인수한 데 이어 8월 27일 2차분 인수를 개시하였음. 한편, 터키 국방부는 2019년 9월 4일 터키 공군 요원들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S-400 운영 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음.
- 이에 미국 정부는 터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료 회원국임에도 NATO의 최대 적인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도입했다고 비판하며, 동년 7월 16일 터키를 자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하였음. 터키 정부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비난하였음.
- 터키는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F-35 기종의 생산에 조력하고 구매를 계획하였으나, 미국은 터키가 S-400과 F-35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F-35의 민감한 정보체계가 S-400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러시아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여 F-35의 대 터키 판매 금지를 결정하였음.
- 아울러 미국에서 F-35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터키 공군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을 출국시키며, NATO 회원국들의 부품 공급망에서 터키를 제외(터키는 900개 이상의 F-35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였음.
- 터키 정부가 2020년 8월 23일 러시아와 S-400의 추가 도입계약 체결(2021년 도입 예정)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터키군이 2020년 10월 16일 흑해 인접 지역에서 S-400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날 미 국무부의 모린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S-400 발사는 NATO 회원국이자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터키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수준의 경고를 보내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를 거듭하고 있음.
- 한편, 2020년 10월 1일 미국 뉴욕 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터키 국영은행이자 총자산 기준(2020년 6월 말) 터키 제2위의 은행인 Halkbank가 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의 적용대상이므로 미국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Halkbank측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앞서 2019년 10월 15일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2012~16년 사이 다수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어기고 이란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수익을 금과 현금의 형태로 확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세탁을 도운 혐의로 Halkbank를 기소하였음.
- 미국 검찰은 터키와 이란 고위 당국자들도 돈세탁 작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으며, Halkbank의 메흐메트 하칸 아틸라 부행장은 대이란 제재 회피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28개월간 복역한 뒤 추방되었으나, 2019년 10월 21일 터키 재무부에 의해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CEO로 임명되었음. Halkbank에 대한 첫 공판은 2021년 3월 1일로 예정되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Halkbank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추 문제로 EU와의 관계도 악화일로

- EU는 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중동 지역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터키와 협력해 왔으나, 2016년 7월의 쿠데타 불발 이후 반대 세력의 숙청과 여론 억압, 사형제 재도입 등 에르도안 행정부의 비민주적 행태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11월 14일자로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 이후 터키와 EU 간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인권, 정교분리,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등을 계속 거론하며 자신을 압박하는 EU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어, 터키의 EU 가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음.
- 최근 터키는 지중해 동부의 섬나라 키프로스 북부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추 문제로 EU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1974년 이후 키프로스의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¹⁹⁾이 프랑스 Total, 이탈리아 Eni, 미국 ExxonMobil 등 서방 에너지 기업들과 손잡고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 개발²⁰⁾을 추진하여 2017년 7월 가스전 탐사 시추를 개시하자, 북부를 지원하는 터키는 이에 반발하여 군사적 개입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음.²¹⁾
- 실제로 2018년 2월 터키 해군이 키프로스 해역으로 이동하던 Eni의 가스 시추선을 군함을 동원하여 저지하였으며, 동년 11월 터키 정부는 이 해역에서 서방 기업들의 자원 탐사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위협의 강도를 높인 데 이어 2019년 2월 키프로스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가스 시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터키는 2019년 5월 3일 북부 키프로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북부 키프로스 주변 해역에서 가스 시추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키프로스와 그리스, EU는 즉각 반발하며 터키의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터키는 8월과 10월에 연이어 시추 작업을 강행하여 EU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접어들었음.
- EU는 2019년 7월 15일 터키와의 종합 항공운송 협정 체결 협상 중단, 유럽투자은행(EIB)의 터키 내 대출 관련 사항 전면 재검토 요청, 터키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2020년 터키 내 정치개혁과 농업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배정한 1억 4,480만 유로의 지원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였으며, 11월 11일 터키의 가스 시추와 관련된 개인/단체에 EU 여행 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결정함.

19) 키프로스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남부의 그리스계 주민과 북부의 터키계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던 중 1974년 7월 그리스와 합의하에 합병을 주장하는 그리스계 육군 장교들의 주도로 쿠데타가 발생하자, 터키는 터키계 주민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북부를 점령한 결과 8월 남북으로 분단되었음. 이듬해인 1975년 북부가 자체적 대통령을 선출한 데 이어 1983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TRNC)이라는 국명으로 독립을 선언한 이래 키프로스는 분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남부의 키프로스 공화국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며, 1974년 침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국 군대를 TRNC에 주둔시키고 있는 터키 정부만이 TRNC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한편, 키프로스 공화국은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이 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가 되었음. 남-북 키프로스는 2015년 UN의 중재로 통일 협상을 시작하여 연방제 통일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남부가 북부에 주둔한 약 35,000명의 터키군의 철수를 통일 조건으로 고수하고 북부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2017년 1월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된 바 있음.

20) 에너지 컨설팅 기업 Wood MacKenzie는 지중해 동부 해저에 약 3.5조 m³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10년 간 전 세계에서 새로 확인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이나, 관련국 간의 영해(嶺海) 분쟁 등으로 개발이 저조한 상태임.

21)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에 의하면, 터키 정부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키프로스 EEZ의 44%를 자국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TRNC도 나머지의 25%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국제관계

- EU는 2020년 들어서도 1월 18일 터키의 시리아 내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강행, 동지중해의 불법적 천연가스 시추 활동 등에 대한 대응으로 터키에 지원할 계획이었던 대한 금년도 EU 가입 후보국 지원금(6억 7,200만 유로)을 75% 삭감하여 1억 6,800만 유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터키가 2020년 1월 19일 키프로스 정부가 이탈리아 Eni와 프랑스 Total 등 석유메이저들에 탐사허가를 내준 키프로스 남쪽 해역에서 시추 작업을 개시하고 8월 10일 탐사선 오루츠 레이스와 군함들을 키프로스 섬과 그리스 크레타 섬 사이의 분쟁수역에 투입하였음.
- 이에 그리스·키프로스는 프랑스·이탈리아와의 공군-해군 합동 훈련으로 터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터키도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9월 13일 터키가 오르추 레이스와 다른 2척의 탐사선을 귀환시키면서 일단 진정되었음. 10월 1~2일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었으나, 독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음.
- 이후 그리스와 터키의 외교장관은 10월 8일 회동에서 천연자원 탐사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터키 정부가 10월 11일 합의를 깨고 오르추 레이스를 분쟁해역에 다시 투입²²⁾ 하자 EU의 터키 제재를 반대했던 독일마저 터키를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와는 S-400 도입 등으로 상호 밀착이 가속화되었으나,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개입 문제 등으로 갈등 발생

- 터키는 러시아 세력의 서진(西進) 및 남하(南下)를 저지하기 위해 창설된 NATO의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역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방공 미사일 체계 S-400의 도입 등 군사 협력을 통해 상호 밀착해 왔음.
- 그러나 2020년 9월 27일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대부분의 아르메니아계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놓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16년 만에 다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9월 28일 같은 이슬람권이자 민족적으로도 같은 투르크계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음. 반면 러시아는 같은 정교회 문화권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이자 터키와는 양속 관계인 아르메니아를 지원하여, 양국이 대립 관계에 놓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아르메니아는 터키군 전투기가 자국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활동하던 친터키계 무장세력 산하 전투원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 파견되어 공격에 참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프랑스와 러시아의 정보당국도 해당 전투원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함.
- 이후 터키가 크림 반도 분쟁으로 러시아와 대립 중인 우크라이나와 10월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수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양국 간 군사협력협정에 서명하자, 러시아 공군은 10월 26일 시리아 북부 이틀립에 소재한 친터키계 시리아 반군 Faylaq al-Sham(아제르바이잔 등에 병력을 파견했다고 의심되는 조직)의 훈련소를 공습하여 5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러시아와 터키 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

22) 오르추 레이스의 작업해역은 키프로스 섬과 그리스 영토인 로도스·카파토스·카스텔로리조 섬 인근으로 터키에서는 15km 떨어져 있고 그리스 본토에서는 425km 떨어져 있음. 그러나 1923년 터키 독립전쟁 결과 체결된 로잔 조약에서 양측이 이스탄불을 포함한 동트라키아 지역은 터키의 영토로 하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 바다인 에게해(海)의 섬은 그리스 영토로 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동 해역은 그리스·키프로스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됨.

국제관계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계기로 이란과는 경제적으로 상호 밀착 가속화

- 터키와 이란은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경쟁 관계였으나, 미국 정부가 이란 핵협정(JCPOA)의 일방적 탈퇴 후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고, 터키에도 외교적 마찰로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터키와 이란 간의 경제적 상호 밀착이 가속화됨.
- 터키는 에너지 수요 부족분을 이란으로부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입하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우회로로 터키를 이용하고 있음.
- 2019년 6월 21일 메블뤼트 차오쇼을루 터키 외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년 8월 7일 이란 테헤란과 터키 앙카라를 왕복하는 완행열차 노선 운행이 4년 만에 재개되었음.²³⁾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악화 일로

- 터키 정부가 2018년 10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당시 암살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집요하게 압박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투자 중단, 교역 축소, 자국 관광객 방문 제한 등 경제보복을 추진하여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앞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에 의한 카타르와의 단교 사태 당시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터키는 무슬림형제단에 우호적인 카타르와의 교류 강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하였으며, 리비아 내전에서 서로 다른 진영을 지원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군벌 칼리파 하프트타르가 이끄는 반군 세력인 리비아 국민군을, 터키는 무슬림형제단 계열의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아울러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내 이슬람주의 세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대코자 터키가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근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동시에 시아파 이슬람의 맹주인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는 동시에 이란과는 숙적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과 마찰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쿠르드족 문제 관련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로 갈등 고조

-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 분리주의 조직이 인접국들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주민들과 연대하여 분리 독립을 위한 무력 투쟁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히 이라크의 쿠르드족 군사조직과의 연계를 저지코자 이라크 영토에 미사일 공격 등을 감행하여 이라크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 2020년 6월에도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도후크 주에서 차량들에 대한 터키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하였으며, 8월에는 터키군 드론(무인기)이 이라크 영공을 침범하여 공격을 가해 이라크군 대대장급 장교 2명과 운전병 1명이 사망하는 등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를 거듭하여 이라크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

23) 동 노선은 2015년 7월 터키 남동부에서 기차를 겨냥한 폭발물 공격 발생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당시 터키 정부와 이란 정부 모두 쿠르드노동자당(PKK)을 테러의 주제로 지목하였음.

외채상환태도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0.14%로 낮은 수준

- 2020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터키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257억 1,854만 달러(단기 32억 9,410만 달러, 중장기 224억 2,444만 달러)이며, 이중 연체액은 중장기 3,243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14%로 낮은 수준임. 다만, 이는 2018년 9월 말 기준 수치(중장기 2,780만 달러, 전체 잔액의 0.08%)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임.
- 동 연체금액은 전쟁, 내전 등 정치적 리스크에 의한 ECA 원리금 연체 상황만을 반영함.
- 2020년 6월 말 기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액은 없음.

주요 ECA들은 터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

- 2020년 10월 26일 현재 미 수은(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터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 모두 인수 가능함.
- 단, HERMES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 모두 건별 심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IMF는 터키의 외채지속가능성이 중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IMF는 터키의 Country Report 최신회(2019.12월)에서, 터키의 외채상황에 대한 기본가정(baseline)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8년 약 57.1%에서 중기적으로는 40%대 중반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제시하였음. 다만, 리라 가치 하락과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가 외채상환능력에 계속 중요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음.²⁴⁾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터키 외채의 약 21%는 터키 국내 은행들이 외화차입금 등의 형태로 도입한 외화표시부채로 집계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0.01)	5등급 (2019.02)
S & P	B+ (2018.08)	BB- (2018.06)
Moody's	B2 (2020.09)	B1 (2019.06)
Fitch	BB- (2019.07)	BB (2018.07)

Moody's, 터키의 정부채권신용등급을 '투자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

- Moody's는 2019년 6월 14일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그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터키의 정부채권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9월 11일 ①대외취약성의 증가²⁵⁾ 및 국제수지 위기 가능성 고조, ②정부의 지속적 시장개입에 따른 정책 신뢰도 악화 및 정부의 대응 의지·능력 결여, ③신용등급을 뒷받침해온 재정여력의 악화 등을 이유로 동 신용등급을 B1에서 B2으로 재차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였음.
- 최근 Moody's의 터키 정부채권신용등급 조정 : Ba1 → Ba2('18.3) → Ba3('18.8) → B1('19.6) → B2('20.9)
- B2는 '투자주의' 해당 등급으로, 현재 이집트, 자메이카, 르완다 등이 본 등급에 속해 있음.
- 한편, Fitch는 2019년 7월 12일 중앙은행 총재 해임으로 나타난 터키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과 그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등을 이유로 터키의 정부채권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25) Moody's는 자체 계산방식에 따른 터키의 외환보유액 규모(금 보유량 제외)를 9월 4일 기준 449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초의 추정치보다 약 40% 감소한 수준임.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기 위축, 미국과 EU의 대 터키 경제제재 등 외부적 요인과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을 비롯한 에르도안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고조 등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리라 가치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이 계속되던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위축이 겹쳐, 2020년 터키 경제는 -5.0%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에르도안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제 도입 후 3권분립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며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를 노골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됨. 이는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 주요 지자체장직을 야당이 석권하고 여당 중진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결과를 낳았음.
- 브렌슨 목사 억류 사건,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체계 도입, 키프로스 해역에서의 천연가스 시추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EU와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는 터키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등을 초래하여 불확실성 증폭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리라 환율 동향과 외채상환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